

전문가 기고

네티피아 세상은 왔다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 네티(Net)는 비트(bit)가 머무는 모드(mode : 결합점)로서 정보가 자유로이 오가는 일정한 토폴로지(위상공간)를 갖는 비공간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이 너무도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해 정보화의 공과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가상·현실 넘나드는 생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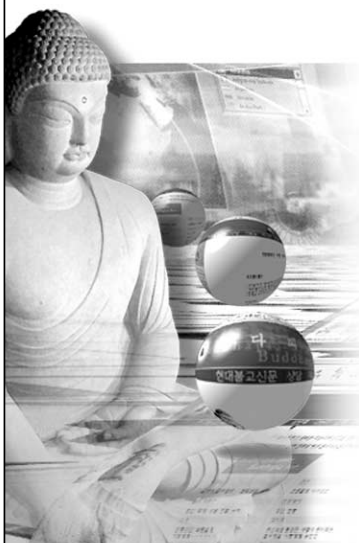
일체 존재와 연결된 '나' 찾기 꾸준

네티피아 세상은 비물질적 가상의 세계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독자의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가 세계적인 인터넷망으로 조직되고 있는 오늘날 컴퓨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비실재의 존재를 그래픽으로 모의할 수 있는 현실 아닌 가상현실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

구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미래사회로 갈수록, 또 다기능의 컴퓨터기기와 나노과학을 비롯한 첨단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불교적인 정신문화가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잠선, 초월명상, 단학, 기공법, 심리치료법, 오르곤치료법, 법륜대법, 아바타 등 수많은 수행법과 명상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수많은 명상법들은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초월하여 우주적인 무아의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나, 쾌락과 탐욕에 매몰된다, 그리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갈기갈기 찢어진 나, 이 개(個)적 나를 초월하여 일체의 존재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되찾자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와 수행문화

정보의 바다, 수행 열기로 가득

대표 수행 사이트

수행관련 사이트는 크게 수행법에 따라 선, 위빠사나, 염불 수행, 명상과 제 3수행법, 모든 수행법을 아우르는 종합 수행 사이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여인구 증가 새로운 신행패턴 확립
훌륭한 포교매체로 발전 가능성 높아

한국에서 위빠사나를 수련한 한국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님의 '관수련회', 상명대 박 석 교수의 '바라보기 명상', 박민수 거사의 '참나찾기교육' 등의 사이트는 명상과 제 3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어 가파른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버문화와 수행의 결합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정보제공자와 수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공간 제약없이 현대인 욕구 충족

지도자 자질·출로수행 단점 보완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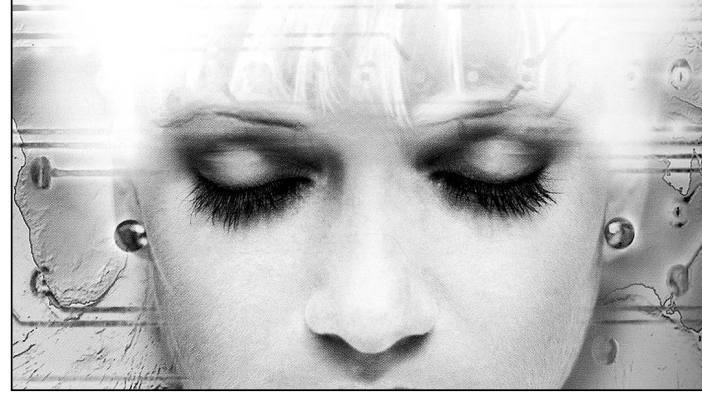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법과 수행목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수행 지도자가 많지 않다. 특히 수행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경지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해 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지도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천 없이 수행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만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실공간에서의 수행은 도반이 존재한다.

제언

사이버 공간은 수행에 관한 정보를 얻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궁극의 깨달음을 담보해 줄 수는 없다.

Table with 3 columns: Site Name, URL, and Description. Includes sites like www.fuoyee.or.kr, www.mindfree.net, etc.



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행은 현실 공간과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공간의 수행처에서 스승을 모시고 도반과 함께 수행을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

(社)大韓佛敎一乘宗 宗正 泰仁堂 妙宗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7년 10월3일 8시경 圓寂에 드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종
宗正 泰仁堂 妙宗 大宗師께서 세수97세, 법랍58세를 일기로 2003년 10월 3일 8시경에 입적하셨습니다.

妙宗 大宗師 靈前에
天누리 淸淨하니 하늘문이 푸르르니
一鶴 부러하야 한마리 학으로 부러움이

- 장례위원 임원
자문위원
보행위원장: 능허 해경 불행위원장은 정대
봉행위원: 법경 보행 혜종 상인 진오 용진 지인 보현 정법 정대 일승 법경 법륜 해경 송강 송암 공덕 승천 법지 정암 정은 진경 포광 해진 민원 해인 상인 해원 해지 계남 성타 행차 무각 금성 인호 원광 정옥 정연 정설 법해 정모 상인 묘화 정안 (무순)

(社)大韓佛敎一乘宗 宗正 泰仁堂 妙宗 大宗師 葬儀委員會